

외모의 사회적 유용성이 여자 청소년의 신체만족도와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 미 숙

공주대학교 의류상품학과 교수

The Effects of Social Instrumentality of Appearance on Body Satisfaction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of Female Adolescents

Mi-Sook Lee

Prof., Dept. of Fashion Design & Merchandising, Kongju National University

(2012. 10. 8. 접수; 2012. 11. 21. 수정; 2012. 11. 23. 채택)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female adolescents' attitude toward the social instrumentality of appearance and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attitude toward the social instrumentality of appearance on female adolescents' body satisfaction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The subjects for this study were 435 female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in Daejeon and Chungnam province. The research method was a survey and the measuring instruments were a self-administrated questionnaire with 4 parts (social instrumentality of appearance, body satisfaction,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and subjects' demographics attributions). The data were analyzed by Cronbach's α , factor analysis, cluster analysis, χ^2 test, t-test, using SPSS statistical program.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ree dimensions (the utility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sexual partnership and social achievement) were emerged on social instrumentality of appearance, and female adolescents were divided into 2 groups(unreceptive group and receptive group) by social instrumentality of appearance. Social instrumentality of appearance had significant effects on female adolescents' body satisfaction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The group who had receptive attitude toward the social instrumentality of appearance was showed the lower body satisfaction and more positive attitude to perform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including clothing and accessories management, fitness, skin and hair care, and plastic surgery than unreceptive group.

Key Words: Social instrumentality of appearance(외모의 사회적 유용성), Body satisfaction(신체만족도),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외모관리행동), Female adolescents(여자 청소년)

I. 서론

현대의 물질적 풍요와 소비문화, 그리고 매스 미디어의 발달은 정보화 사회에서 전달의 기능

을 지니고 있는 외모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켰으며, 이로 인해 최근 외모지상주의 가치의식이 강력하게 부상되고 있다. 외모지상주의(Lookism)란 외모가 사회적으로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됨

으로써 개인 간의 우열과 성패를 가름한다고 믿어 외모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을 일컫는 용어로, 2000년 8월 미국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인 윌리엄 새파이어(William Safire)가 인종, 성별, 종교, 이념 등에 이어 외모를 21세기 새롭게 등장한 차별요소로 지목하면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민지현, 2008). 실제로 선행 연구들과 뉴스 보도기사들을 살펴보면, 매력적인 외모를 지닌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취업, 데이트, 타인의 도움행동 등 다양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박광희, 유화숙, 2012; Haas & Gergory 2005; Mulford et al., 1998; Sarwer et al., 2004).

이와 같이 외모의 사회적 유용성에 대한 믿음인 외모지상주의의 가치관은 세계적인 경향이긴 하나, 특히 한국인들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외모에 관심이 많고 외모 가꾸기에 열중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2003년 인터넷 검색순위 1위였던 ‘얼짱 신드롬’에 이어 2004년 ‘몸짱 아줌마’, 2005년 대통령 내외의 쌍커플 성형, 2006년 ‘S라인과 동안 신드롬’, 그리고 ‘갯 잇 뷰티’, ‘스타일 오프’, ‘도전 신데렐라’, ‘렛미인’ 등과 같이 최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케이블 TV의 ‘메이크 오버’ 프로그램이 시청자들의 관심도를 높이는 효과 아이템으로 부상하고 있는 현상은 한국에 이미 만연되어 있는 외모지상주의 열풍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조선일보, 2006. 11. 7; 조선일보, 2010. 7. 8).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경험하게 됨에 따라 일생 중 자신의 신체와 외모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은 시기로서, 그 시대와 문화에 의해 제시된 이상적인 미적 기준과의 비교를 통한 신체적 우열에 의하여 지적, 정서적, 사회적 활동에 큰 영향을 받는다. 또한 이 시기의 신체 및 외모에 대한 평가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자아개념 및 사회성 발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김정애, 김용숙, 2003; 윤진, 1993). 그러나 매스미디어를 통해 강화되는 외모지상주의의 가치관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신체와 외모에 지나치게 집착하도록 유도할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마른 연예인을 이 시대의 이상적인 신체상으로 제시하여 청소년들이 자신의 신체를 긍정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다이어트, 단식, 성형수술 등의 지나친 외모관리행동에 몰두하도록 만들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 내에 만연해있는 이러한 외모지상주의의 가치관은 남자 청소년보다도 여자 청소년들의 신체만족도와 외모관리행동에 더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 진다. 서울시가 ‘2009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질병관리본부) 및 2009 서울 서베이(서울시)’ 등을 분석해 발표한 ‘e-서울통계’ 46호에 따르면, 서울 중·고교생 중 여학생의 54%는 외모를 가꾸기 위해 성형수술을 할 수 있다고 응답했으며(조선일보, 2011. 10. 14), 최근의 뉴스 기사를 살펴보면 이러한 외모지상주의 열풍은 점점 더 어린 연령의 학생들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조선일보, 2012. 7. 2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외모지상주의의 가치관, 즉 외모의 사회적 유용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외모의 사회적 유용성에 대한 태도가 여자 청소년의 신체만족도와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외모의 사회적 유용성

외모지상주의(Lookism)란 외모가 사회적으로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됨으로써 개인 간의 우열과 성패를 가름한다고 믿어 외모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현상을 말한다. 실제로 외모는 타인과의 대인관계, 취업, 배우자관계 등의 다양한 사회생활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 진다. 외모의 사회적 유용성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매력적인 사람들은 비매력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더 지적이고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았으며(Sarwer et al, 2004), 더 좋은 직장을 얻고, 더 높은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Mulford et al., 1998). 또한 매력적인 사람은 비매력적인 사람들에 비해 연인관계나 일반적인 대인관계에서 더 많은 혜택과 기회를

누리며(Haas & Gergory 2005; Mulford et al, 1998), 타인들에게 더 인기가 있고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박광희, 유화숙, 2012).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취업, 배우자 관계, 직업 활동 등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하나만을 대상으로 외모의 사회적 유용성을 조사하였으므로, 사람들이 인식하는 외모의 사회적 유용성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김완석 외(2010)는 외모의 사회적 유용성을 '외모가 사회적 영역인 대인관계, 연인(배우자) 관계, 사회적 성취 차원에서 가지는 유용성에 대한 개인의 신념 또는 믿음'이라 정의하고, 외모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외모의 사회적 유용성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도구(Body Value Inventory-Social Instrumentality-Appearance: BVI-SI-A)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는 외모존중감, 신체감시성, 신체편향성, 외모관리 행동의도 등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였으며, 신체이미지와 신체 및 외모관리행동의 연구에 유용한 척도로 제시되었다.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외모의 사회적 유용성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 대학생들은 대체적으로 외모의 사회적 유용성을 높게 지각하고 있었으며, 외모의 사회적 유용성을 중시하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외모가 가지는 이점을 얻기 위해서 외모를 중시하고, 이상적인 외모와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신체에 불만족하는 경향을 보이며, 화장품 소비, 다이어트, 성형수술 등과 같이 외모를 관리하고 향상시키려는 행동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완석 외, 2010).

2. 신체만족도

신체만족도란 신체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에 의한 만족과 불만을 말하는 것으로(정수진, 추미선, 2011), 의복 및 외모와 관련된 자아개념 요소 중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Secord & Jourad, 1953). 신체이미지는 전체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며, 일반적으로 신체만족도가 높을 때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게 된다.

청소년기는 인간의 자아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기이며, 성취와 가능성의 결정시기이다. 또한 신체적으로나 생리적으로 매우 빠르게 성장하며 여러 가지 새로운 기능이 발달하는 시기이다(김새미나, 2010; 최수빈, 조우현, 2003). 청소년기의 빠른 신체변화는 새로운 신체이미지를 형성할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데, 청소년기의 신체 이미지는 자아존중감, 성격, 사회성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조현임, 2005), 특히 여성의 경우는 신체적 매력이 남성에게 비해 더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외모에 집착하게 만든다. 그러나 오늘날 미의 기준은 지나치게 날씬하고 도달하기 어려운 미적 조건의 여성을 이상적인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사춘기 여자 청소년의 경우는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체중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상적인 기준과의 괴리를 느껴 신체에 대한 불만족이 증가하게 된다(Stice & Bearman, 2001).

한국 청소년 개발원(2000)에 따르면, 중, 고등학교 여학생의 75%가 자신의 신체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다리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몸무게, 키, 배, 얼굴 피부, 가슴, 엉덩이의 순으로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애란과 김양진의 연구(1996)에서는 청소년들은 하반신과 전신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었으며, 여자가 남자보다, 고등학생이 중학생이나 대학생보다 자신의 신체에 대해 더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숙(2000)의 연구에서도 여자가 남자보다, 연령별로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보다 자신을 이상적인 신체이미지보다 더 뚱뚱하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숙(2001)은 대체적으로 여자 청소년들의 신체만족도는 낮은 편이었으며 여고생이 여중생보다 신체만족도가 더 낮았고, 불만족한 항목은 하체부위(특히 허벅지와 장딴지)와 체중이라고 하였다. 고은주와 장남경(2003)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청소년들은 몸무게에 대한 불만정도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고, 몸무게>전체적인 몸매, 하체>키>피부>상체>얼굴생김새>체격>머리결>피부색 순으로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해보면, 여자 청소년들의 신체만족도는 중간 이하로 특히 체중과 하반신

에 대한 불만정도가 높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신체만족도가 더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외모지상주의, 즉 외모의 사회적 유용성에 대한 믿음이 중요 원인중의 하나일 것으로 보여 진다.

3. 외모관리행동

외모관리란 개인이 타인과의 상호관계를 통해 자신의 역할을 연기하면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해 나가는 과정으로, 타인에게 자신을 알리고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김현정, 이명희, 2012; Kaiser, 1997). 현대 사회에서 외모는 타인에게 자신을 인식시키고 좋은 이미지로 받아들여지게 하는 매개체로서 그 중요성이 급격히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근에는 이상적인 외모를 만들기 위해 성별, 연령, 계층의 구분 없이 외모관리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다(이시원, 2004).

그 중에서도 청소년들은 급격한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경험하게 됨에 따라 자신의 신체와 외모에 매우 민감한 성향을 지니고 있는데, 현대 사회의 외모지상주의의 가치관은 이러한 청소년의 신체이미지와 외모관리행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 진다. SBS는 ‘외모도 경쟁력이다! 성형을 꿈꾸는 아이들(10대 성형열풍)’ 편을 방영하면서 10대 성형열풍의 원인으로 인터넷과 각종 미디어의 외모지상주의의 성향을 원인으로 지적하였다(SBS, 그것이 알고 싶다. 2006. 11. 4). 또한 매스미디어를 통해 제시되는 현대 사회의 지나치게 마른 체형을 추구하는 미의 기준은 여자 청소년들에게 피부관리, 다이어트, 운동조절, 화장품사용, 의복착용 뿐 아니라 성형수술과 같은 극단적인 외모관리행동을 촉진시키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Block & Richins, 1992).

청소년들의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이명희(2003)는 청소년들의 외모관리행동을 분석한 결과, 여자가 남자보다 외모관심, 체중관심, 신체수정 요구도가 높았으며 신체만족도는 낮았다고 하였고, 이종순(2007)의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은 외모관리행동 중 피부관리

를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가벼운 색조 화장까지 하는 경우가 많았고,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의복관리를,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피부와 몸매관리를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애와 김용숙(2003)의 연구에서는 여중고생들은 피부관리와 헤어관리를 많이 하였으며, 색조화장을 시작하는 시기는 중학교 때가 가장 많았고, 화장의 경우는 스킨, 로션의 기초화장과 함께 립글로스나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으며, 파운데이션이나 눈화장을 하는 경우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심준영, 김현희, 2008). 한편, 장희순(2007)은 최근 중,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외모를 가꾸기 위한 수단으로 성형수술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부모로부터 선물의 형태로 성형수술이 많이 시행되고 있다고 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여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외모의 사회적 유용성에 대한 태도, 신체만족도, 외모관리행동을 알아보고, 외모의 사회적 유용성이 여자 청소년의 신체만족도와 외모관리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하며,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자 청소년의 연령집단에 따라 외모의 사회적 유용성에 대한 태도, 신체만족도, 외모관리행동에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본다.

둘째, 외모의 사회적 유용성에 대한 태도에 따라 여자 청소년의 신체만족도 및 외모관리행동에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본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피험자는 대전과 충남지역에 위치한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자 청소년 435명이었다. 피험자들은 연령집단(중학생, 고등학생), 학교 유형(여학교, 남녀공학), 거주 지역(대

전, 충남)을 고려한 편의표집 방법에 의해 선정되었으며, 피험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1> 피험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항 목		빈도(n)	백분율(%)
연령 집단	중학생	227	52.2
	고등학생	208	47.8
학교 유형	여학교	207	47.6
	남녀공학	228	52.4
거주 지역	대전	223	51.3
	충남	212	48.7
한 달 용돈	3만원 미만	194	45.2
	3-5만원	160	37.3
	5-10만원	60	14.0
	10만원 이상	15	3.5
한 달 의류 구입비	5만원 미만	253	58.8
	5-10만원	102	23.4
	10-15만원	51	11.9
	15만원 이상	24	5.6
가계 월 소득	200만원 미만	55	14.0
	200-400만원	193	49.0
	400-600만원	89	14.0
	600만원 이상	29	7.8

3. 측정도구

본 연구는 설문지법에 의해 실시되었으며, 설문지는 크게 외모의 사회적 유용성 측정도구, 신체만족도 측정도구, 외모관리행동 측정도구, 그리고 피험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외모의 사회적 유용성에 대한 측정도구는 김완석 외(2010)에 의해 개발된 측정도구를 토대로 제작하였다. 김완석 외(2010)의 측정도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여자 중, 고등학생의 상황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문항과 요인부하량이 낮게 나온 문항을 제외하고 총 10개의 문항으로 측정도구를 구성하였다. 외모의 사회적 유용성 측정도

구의 신뢰도는 .85~.86으로 높은 신뢰도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5점의 likert형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5: 매우 그렇다)로 제시되었다. 신체만족도 측정도구는 선행연구들(김정애, 김용숙, 2003; 이은희, 2007)을 토대로 키, 체중, 얼굴, 상체, 하체 등의 다양한 신체부위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는 문항들(20문항)로 구성하였으며, 각 문항은 5점의 likert형 척도로 제시되었다. 한편, 여자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신체상을 알아보기 위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여자의 키와 체중을 자유기술식으로 적는 2문항이 포함되었다. 외모관리행동 측정도구는 선행연구들(김아날리아 외, 2006; 박광희, 유화숙, 2012; 박은아 외, 2009)을 토대로 의복 및 액세서리, 헤어, 피부, 체중관리, 외모변형행동에 대한 18문항을 구성하여 각 외모관리행동을 수행한 여부와 앞으로의 수행의도를 조사하였다. 그 외에 피험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조사하는 문항으로 피험자의 학교, 학교유형, 거주 지역, 한 달 용돈, 한 달 의류구입비, 가계 월 소득에 대한 6문항이 포함되었다.

4.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2011. 3. 29~4. 11.의 약 2주간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46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448부가 회수되었으며, 그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13부를 제외하고 435부가 본 연구를 위한 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도출을 위한 자료 분석은 SPSS 통계프로그램(Ver. 18.0)을 이용하여 수행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으로는 기술통계, 신뢰도분석, 요인분석, 군집분석, χ^2 검증, t-test가 실시되었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외모의 사회적 유용성

먼저 외모의 사회적 유용성의 차원을 알아보기 위해 주성분분석과 Varimax 회전방법을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외모의

<표 2> 외모의 사회적 유용성 차원

요인명	구성 문항	요인 적재치	설명변량 (누적변량)	신뢰도 계수
대인관계 유용성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외모가 매력적인 사람들에게 더 친절하다.	.83	26.96 (26.96)	.85
	매력적인 외모를 가지면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기 쉽다.	.78		
	외모가 매력적이면 친구들을 많이 만들 수 있다.	.72		
	사람들은 외모가 매력적인 사람의 실수에 더 관대하다.	.67		
연인관계 유용성	매력적인 외모는 연애를 하는데 도움을 준다.	.86	24.33 (51.29)	.85
	외모가 매력적이면 이성친구들에게 호감을 얻기 쉽다.	.85		
	외모가 매력적이면 이성과 데이트할 기회가 더 많다.	.72		
사회적 성취 유용성	외모가 매력적이면 사회적으로 인정을 더 받는다.	.82	24.10 (75.39)	.86
	외모가 매력적이면 직장생활에서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	.81		
	매력적인 외모는 사회적 성공에 도움을 준다.	.70		

<표 3> 외모의 사회적 유용성 평균점수

외모의 사회적 유용성	평균	연령집단		
		중학생	고등학생	t 값
대인관계 유용성	3.25	3.04	3.48	-5.83***
연인관계 유용성	3.69	3.48	3.92	-5.99***
사회적 성취 유용성	3.03	2.82	3.25	-5.30***
전 체	3.32	3.11	3.55	-6.69***

*** $p < .001$

사회적 유용성에 대해 대인관계 유용성, 연인관계 유용성, 사회적 성취 유용성의 3차원이 도출되었으며, 총 설명력은 75.39%였다.

여자 청소년들이 외모의 사회적 유용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 점수를 산출한 결과, 외모의 사회적 유용성에 대한 전체 평균점수는 3.32로, 여자 청소년들은 외모의 사회적 유용성을 비교적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민지현, 2008; 이양환, 권숙영, 2010)에서 지적한 것처럼 우리 사회 전반에 외모지상주의의 가치관이 만연해 있으며, 이러한 가치관은 청소년들이 주로 접하는 TV, 인터넷 등의 매스미디어를 통해 강화됨으로써 청소년들의 외모에 대한 가치관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청소년들이 어떠한 사회적 차원의 유용성을 더 높게 지각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각 차원별 평균점수를 조사한 결과, 대인관계 유용성은 3.25, 연인관계 유용성은 3.69, 사회적 성취 유용성은 3.03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

자 청소년들은 외모가 연인(이성 친구) 관계를 형성하는데 가장 유용한 수단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일반적인 대인관계에서의 유용성을 높게 지각하였고, 사회적 성취 유용성은 중간 정도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모의 사회적 유용성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이 연령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외모의 사회적 유용성에 대한 지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살펴보면, 대인관계, 연인관계, 사회적 성취의 모든 측면에서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외모의 사회적 유용성을 훨씬 더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더 오랜 시간 동안 TV나 인터넷과 같은 매스미디어를 접하면서 매스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외모지상주의의 가치관에 대한 수용정도가 높아진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청소년들은 매우 감각적이고 외모의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을 보이므로, 매스미디어에서 보이는 감

각적인 영상에 높은 주의를 기울이고 이를 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크다(한상철, 1998). 고등학생은 중학생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매스미디어의 외모지상주의 가치관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접하게 됨에 따라 이를 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 또한 증가하였을 것이라 예상된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은 영상매체의 이용시간이 많을수록 외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김재숙과 이미숙(2001)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보여 진다.

2. 신체만족도

여자 청소년의 신체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여자 청소년들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여자의 신체조건을 조사하였다. 이상적인 여자의 키와 체중을 자유기술식으로 조사한 결과, 여자 청소년들은 평균 165.11cm의 키에 48.35kg의 체중을 지닌 매우 마른 체형을 이상적인 신체조건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나치게 마른 신체조건을 이상적인 것으로 여기는 한국 사회의 미적 판단기준을 청소년들이 그대로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매스미디어를 통해 제시되는 인기 연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과 동일시를 원하는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연령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중학생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여자의 키와 체중에 대해 고등학생보다 폭넓은 범위를 보인 반면, 고등학생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여자의 신체조건에 대한 범위가 비교적 좁고 사회에서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여자의 신체조건에 해당하는 구간의 빈도가 높게 나타나 매스미디어에 의해 제시되는 현대 사회의 미적 판단기준에 대한 수용정도가 중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보여 진다.

여자 청소년들의 신체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여자 청소년들의 신체만족도는 2.75로 중간 이하의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의 신체만족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오늘날 미의 기준이 지나치게 날씬하고 도달하기 어려운 미적 조건의 여성을 이상적인 기준으로 삼고 있는 반면, 사춘기 여자 청소년의 경우는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체중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상적인 기준과의 괴리를 느껴 신체에 대한 불만족이 증가하게 된다는 선행연구(Stice & Bearman, 2001) 결과와 일치하며, 여자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자신의 신체에 대해 더 불만족 한다는 기존의 선행연구(고애란, 김양진, 1996; 이미숙, 2000; 전경숙, 2001)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각 신체부위별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여자 청소년들이 가장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신체부위는 다리 굵기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배, 체중,

<표 4> 여자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여성의 신체조건

이상적인 신체조건		연령집단		χ^2 값
		중학생	고등학생	
키 (cm)	160 미만	23(6.6)	8(2.3)	19.55***
	160~165 미만	83(23.7)	101(28.5)	
	165~170 미만	192(54.9)	220(62.0)	
	170 이상	52(14.9)	26(7.3)	
체중 (kg)	45 미만	55(16.0)	37(10.6)	10.55*
	45~50 미만	161(46.8)	157(45.1)	
	50~55 미만	86(25.0)	121(34.8)	
	55 이상	42(12.2)	33(9.5)	

* $p < .05$, *** $p < .001$

〈표 5〉 신체부위별 만족도 평균점수

신체부위별 만족도		평균	연령집단		
			중학생	고등학생	t 값
체형	키	2.74	2.64	2.84	-1.69
	체중	2.44	2.64	2.22	4.15***
	몸매	2.54	2.71	2.34	3.78***
	자세	2.87	2.85	2.89	-.15
	계	2.65	2.66	2.47	2.29*
얼굴	얼굴형	2.80	2.85	2.75	1.05
	얼굴크기	2.73	2.80	2.65	1.47
	피부	2.63	2.64	2.61	.24
	눈	3.07	3.02	3.13	-.92
	코	2.73	2.74	2.73	.12
	입	3.07	3.08	3.05	.26
	머리카락	3.26	3.30	3.22	.66
	계	2.90	2.92	2.87	.74
상체	어깨	2.93	2.98	2.88	1.10
	가슴	2.81	2.86	2.75	1.21
	배	2.35	2.46	2.23	2.27*
	등	3.10	2.79	2.64	1.45
	팔	2.79	2.64	2.46	1.91
계	2.80	2.86	2.72	2.03*	
하체	허리	2.72	3.10	3.10	.00
	엉덩이	2.55	2.91	2.66	2.42*
	다리 길이	2.72	2.85	2.59	2.37*
	다리 굵기	2.29	2.41	2.15	2.57**
	계	2.57	2.69	2.49	2.59**
전 체		2.75	2.81	2.69	2.01*

* $p < .05$, ** $p < .01$, *** $p < .001$

엉덩이의 순으로 만족도가 낮았고, 비교적 만족도가 높은 신체부위는 머리카락, 등, 눈, 입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중, 고등학교 여학생의 경우 다리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몸무게, 키, 배, 얼굴피부, 가슴, 엉덩이의 순으로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한국청소년개발원(2000)의 결과와 여자 중, 고등학생들은 신체부위보다 얼굴부위의 만족도가 높으며, 허벅지, 하체전반, 엉덩이둘레에 대한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난 전경숙(2001)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신체부위별 만족도가 연령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체중,

몸매, 배, 엉덩이, 다리길이, 다리굵기에 대해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t값을 고려해볼 때 연령집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만족도의 차이는 체중과 몸매에서 두드러진 것으로 제시되었다.

3. 외모관리행동

여자 청소년의 외모관리행동을 알아보기 위해 의복관리, 체중관리, 피부관리, 헤어관리, 외모변형행동에 대한 수행여부와 앞으로의 수행의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먼저 여자 청소년들의

외모관리행동 수행여부를 살펴보면, 청소년들의 94.9%가 스킨, 로션, 세안제 등의 일반화장품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86.2%가 나에게 어울리는 의복이나 액세서리를 구입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운동을 통한 체중관리(79.1%)와 머리염색, 피머, 브리치 등의 헤어관리(77.9%)가 많이 수행되었고, BB크림, 파우더, 눈썹, 립스틱 등의 색조화장품의 사용(67.2%), 피어싱, 귀걸이 착용(54.4%), 키높이구두 등을 통한 가벼운 체형보완행동(52.5%), 일상적인 식이요법을 통한 다이어트(51.3%)도 청소년들에게 비교적 많이 행하여지는 외모관리행동으로 나타났다. 한편, 적극적인 외모변형행동에 대한 수행정도는 매우 낮은 편이었으나, 몸매 성형수술이나 문신에 비해 쌍꺼풀, 코성형 등의 얼굴 성형수술의 수행정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여자 청소년들의 외모관리행동 수행여부가 연령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18개 외모관리행동 항목 중 11개의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외모관리행동을 더 많이 수행하고 있었는데, χ^2 값을 고려해볼 때 특히 일상적인 식이요법을 통한 다이어트의 수행의도가 높았으며 그 외에 키높이 구두를 통한 가벼운 체형보완행동, 피어싱, 귀걸이 착용, 색조화장품 사용, 얼굴 성형수술에 대한 수행정도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 청소년들의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앞으로의 수행의도를 5점의 likert형 척도로 조사한 결과,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은 피부관리와 헤어관리에 대한 수행의도가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의복관리, 체중관리의 순이었고, 외모변형에 대한 수행의도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은 외모관리행동 중 피부관리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한다고 한 이종순(2007)의 결과와 일치하며, 여중고생들은 기초화장과 함께 립글로스나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파운데이션이나 눈화장을 추가하는 경우도 높게 나타났다고 한 심준영과 김현희(2008)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의복관리행동의 각 항목별 수행의도를 살펴보면, 가장 수행의도가 높은 관

리행동은 일반 화장품 사용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의복이나 액세서리 구입, 운동, 머리염색, 피머, 브리치 등의 헤어관리, 그리고 피부관리실이나 피부과를 통한 전문적인 피부관리의 순으로 수행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행의도가 가장 낮은 관리행동은 문신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도 다이어트 제품(살 빼는 약) 복용, 단식 등 매스미디어를 통해 부작용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드러난 체중관리행동에 대한 수행의도가 낮게 나타났다.

한편,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수행의도가 연령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본 결과, 단식, 머리염색, 피머, 브리치 등의 헤어관리, 피어싱, 귀걸이착용의 3항목을 제외한 모든 외모관리행동에서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높은 외모관리 수행의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령집단에 따른 차이는 t값을 고려해볼 때 특히 전문적인 피부관리와 몸매 성형수술(지방흡입, 가슴성형 등), 체중관리를 위한 전문관리실 이용, 얼굴 성형수술(쌍꺼풀, 코성형 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적극적인 외모관리 및 외모변형행동에 훨씬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매스미디어를 통한 외모지상주의 가치관의 영향이 큰 원인으로 파악되며, 이와 함께 의학기술의 발달, 성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변화도 주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외모의 사회적 유용성이 신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외모의 사회적 유용성에 대한 태도에 따라 여자 청소년의 신체만족도에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외모의 사회적 유용성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여자 청소년을 분류하고자 K-Means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여자 청소년은 외모의 사회적 유용성을 높게 지각하는 수용형과 외모의 사회적 유용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지각하는 비수용형의 2집단으로 구분되었다. 군집유형에 따른 피험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집단, 거주지역, 한 달 용돈에서 차이가 나타났는

〈표 6〉 외모관리행동 수행여부

외모관리행동		수행여부		n(%)
		있음	없음	
의복관리	나에게 어울리는 의복이나 액세서리 구입	368(86.2)	59(13.8)	
	키높이 구두/뒷굽이 높은 운동화	221(52.5)	200(47.5)	
	체형커버제품(체형보정용 속옷 등)	64(15.4)	352(84.6)	
체중관리	일상적인 식이요법을 통한 다이어트	216(51.3)	205(48.7)	
	다이어트 제품(살 빠지는 약) 복용	30(7.1)	392(92.9)	
	단식	114(27.0)	309(73.0)	
	운동(줄넘기, 헬스, 에어로빅 등)	344(79.1)	79(18.7)	
피부관리	체중관리를 위한 전문관리실 이용(살빼기교실 등)	22(5.2)	398(94.8)	
	일반 화장품 사용(스킨, 로션, 세안제 등)	406(94.9)	22(5.1)	
	색조 화장품 사용(BB크림, 파우더, 눈썹, 립스틱 등)	287(67.2)	140(32.8)	
	전문적인 피부관리(피부관리실이나 피부과에서 관리)	58(13.3)	367(86.4)	
헤어관리	헤어관리제품(트리트먼트 등) 사용	263(61.9)	162(38.1)	
	전문적인 헤어관리(미용실, 피부과에서 두피관리 등)	80(18.9)	343(81.1)	
	머리염색, 펴머, 브리치 등	331(77.9)	94(22.1)	
외모변형	피어싱, 귀뚫기(귀걸이 착용)	231(54.4)	194(45.6)	
	문신	3(0.7)	419(99.3)	
	얼굴 성형수술(쌍꺼풀, 코성형 등)	19(4.5)	413(95.5)	
	몸매 성형수술(지방흡입, 가슴성형 등)	3(0.7)	418(99.3)	

〈표 7〉 연령집단별 외모관리행동 수행여부

외모관리행동		수행여부 연령	있음	없음	χ^2 값
		고등학생 189(91.3)	18(8.7)		
	키높이 구두/뒷굽이 높은 운동화	중학생 93(42.9)	124(57.1)	16.68***	
		고등학생 128(62.7)	76(37.3)		
체중관리	일상적인 식이요법을 통한 다이어트	중학생 88(40.6)	129(59.4)	20.73***	
		고등학생 128(62.7)	76(37.3)		
	다이어트 제품(살 빠지는 약) 복용	중학생 10(4.5)	210(95.5)	4.57*	
		고등학생 20(9.9)	182(90.1)		
	단식	중학생 49(22.4)	170(77.6)	4.83*	
		고등학생 65(31.9)	139(68.1)		
	체중관리를 위한 전문관리실 이용 (살빼기교실 등)	중학생 6(2.8)	212(97.2)	5.64*	
		고등학생 16(7.9)	186(92.1)		
피부관리	색조 화장품 사용 (BB크림, 파우더, 눈썹, 립스틱 등)	중학생 129(58.9)	90(41.1)	14.09***	
		고등학생 158(76.0)	50(24.0)		
헤어관리	헤어관리제품(트리트먼트 등) 사용	중학생 122(55.5)	98(44.5)	7.99**	
		고등학생 141(68.8)	64(31.2)		
	머리염색, 펴머, 브리치 등	중학생 162(74.0)	57(26.0)	4.01*	
		고등학생 169(82.0)	37(18.0)		
외모변형	피어싱, 귀뚫기(귀걸이 착용)	중학생 99(45.2)	120(54.8)	16.68***	
		고등학생 132(64.1)	74(35.9)		
	얼굴 성형수술(쌍꺼풀, 코성형 등)	중학생 2(0.9)	218(99.1)	13.80***	
		고등학생 17(8.4)	185(91.6)		

* $p < .05$, ** $p < .01$, *** $p < .001$,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만 제시하였음

<표 8> 외모관리행동 수행의도

	외모관리행동 측정문항	평균	연령집단		
			중학생	고등학생	t 값
의복 관리	나에게 어울리는 의복이나 액세서리 구입	3.70	3.50	4.00	-4.08***
	키높이 구두/뒷굽이 높은 운동화	3.12	2.99	3.32	-2.33*
	체형커버제품(체형보정용 속옷 등)	2.61	2.39	2.86	-4.09***
체중 관리	일상적인 식이요법을 통한 다이어트	3.35	3.12	3.66	-3.81***
	다이어트 제품(살 빠지는 약) 복용	1.99	1.72	2.29	-4.65***
	단식	2.08	2.00	2.18	-1.48
	운동(줄넘기, 헬스, 에어로빅 등)	3.66	3.51	3.87	-2.65**
	체중관리를 위한 전문관리실 이용(살빼기교실 등)	2.79	2.40	3.22	-5.83***
피부 관리	일반 화장품 사용(스킨, 로션, 세안제 등)	4.10	3.97	4.30	-2.49**
	색조 화장품 사용(BB크림, 파우더, 눈썹, 립스틱 등)	3.13	2.92	3.47	-3.50***
	전문적인 피부관리(피부관리실이나 피부과에서 관리)	3.47	3.06	3.92	-6.54***
헤어 관리	헤어관리제품(트리트먼트 등) 사용	3.34	3.12	3.65	-3.55***
	전문적인 헤어관리(미용실, 피부과에서 두피관리 등)	3.31	3.03	3.63	-4.56***
	머리염색, 퍼머, 브리치 등	3.54	3.48	3.61	-0.85
외모 변형	피어싱, 귀뚫기(귀걸이 착용)	3.26	3.17	3.37	-1.28
	문신	1.81	1.56	2.08	-4.55***
	얼굴 성형수술(쌍꺼풀, 코성형 등)	2.74	2.35	3.17	-5.76***
	몸매 성형수술(지방흡입, 가슴성형 등)	2.17	1.79	2.58	-6.14***

* $p < .05$, ** $p < .01$, *** $p < .001$

데, χ^2 값을 고려해볼 때 특히 연령집단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진 것을 알 수 있었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수용형은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의 비율이 우세하게 높았으며, 충남보다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이 많았고 비수용형에 비해 용돈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의 사회적 유용성에 따른 청소년 유형별 신체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 비수용형과 수용형 모두 신체만족도 점수는 3점 이하로 자신의 신체에 대해 전반적으로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용형이 비수용형보다 신체만족도 점수가 상대적으로 더 낮았으며, 체형, 얼굴, 상체, 하체 각 부분에 대한 신체만족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 부위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외모의 사회적 유용성 유형에 따라 신체만족도에 가장 큰 차이를 보인 신체부분은 체중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엉덩이, 어깨, 몸매, 배, 다리길이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외모의 사회적 유용성을 높게 지각

하는 청소년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체중, 엉덩이, 어깨, 몸매, 배, 다리길이에 대해 불만족하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외모의 사회적 유용성을 중시하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외모가 가지는 이점을 얻기 위해서 외모를 중시하고, 이상적인 외모와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신체에 불만족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선행연구(김완석 외, 2010) 결과와 일치한다.

<표 9> 외모의 사회적 유용성에 의한 집단구분

요인	군집유형	비수용형 (n=241)	수용형 (n=191)	F 값
대인관계 유용성		2.73	3.91	439.25***
연인관계 유용성		3.22	4.28	324.14***
사회적 성취 유용성		2.49	3.71	397.27***

*** $p < .001$

<표 10> 외모의 사회적 유용성 유형별 인구통계학적 특성

인구통계학적 특성		군집유형		χ^2 값
		비수용형	수용형	
연령 집단	중학생	159(66.0)	67(35.1)	40.77***
	고등학생	82(34.0)	124(64.9)	
거주 지역	대전	112(46.5)	110(57.6)	5.27*
	충남	129(53.5)	191(42.4)	
한 달 용돈	3만원 미만	128(53.8)	64(34.0)	18.04***
	3-5만원	78(32.8)	81(43.1)	
	5-10만원	27(11.3)	33(17.6)	
	10만원 이상	5(2.1)	10(5.3)	

* $p<.05$, *** $p<.001$,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만 제시하였음

<표 11> 외모의 사회적 유용성 유형별 신체만족도

신체만족도		군집유형		t 값
		비수용형	수용형	
체 형	키	2.78	2.70	.62
	체중	2.62	2.21	3.99***
	몸매	2.66	2.38	2.84**
	자세	2.93	2.81	1.32
	계	2.69	2.43	2.99**
얼 굴	얼굴형	2.86	2.73	1.35
	얼굴크기	2.80	2.65	1.39
	피부	2.72	2.52	1.71
	눈	3.16	2.97	1.72
	코	2.88	2.57	3.02**
	입	3.17	2.96	2.02*
	머리카락	3.30	3.22	.71
	계	2.98	2.80	2.54**
상 체	어깨	3.06	2.76	3.35***
	가슴	2.87	2.73	1.39
	배	2.48	2.19	2.88**
	등	2.83	2.58	2.34*
	팔	2.65	2.42	2.47*
계	2.91	2.65	3.76***	
하 체	허리	3.17	3.01	1.68
	엉덩이	2.95	2.57	3.70***
	다리 길이	2.85	2.57	2.54**
	다리 굵기	2.40	2.15	2.43*
	계	2.71	2.46	3.18**
전 체	2.85	2.63	3.56***	

* $p<.05$, ** $p<.01$, *** $p<.001$

5. 외모의 사회적 유용성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외모의 사회적 유용성에 대한 태도에 따라 여자 청소년의 외모관리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외모의 사회적 유용성 유형별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앞으로의 수행의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외모의 사회적 유용성 유형에 따라 모든 외모관리행동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 수용형이 비수용형보다 다양한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수행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외모의 사회적 유용성을 중시하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외모가 가지는 이점을 얻기 위해서 외모를 중시하고, 화장품 소비, 다이어트, 성형수술 등과 같이 외모를 관리하고 향상시키려는 행동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김완석 외(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V. 결론

본 연구는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외모의 사회적 유용성에 대한 태도, 신체만족도, 외모관리행동을 알아보고, 외모의 사회적 유용성이 여자 청소년의 신체만족도와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연구결과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자 청소년들은 대체적으로 외모의 사회적 유용성을 높게 지각하고 있었고 여러 사회적 관계에서도 특히 연인이나 이성친구 관계를 형성하는데 외모가 미치는 유용성을 가장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이러한 외모의 사회적 유용성에 대해 훨씬 더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둘째, 여자 청소년들은 매우 마른 체형을 이상적인 여성의 신체조건으로 지각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자신의 신체에 불만족하는 경향이 높았는데, 특히 다리굵기, 배, 체중, 엉덩이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체중과 몸매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

<표 12> 외모의 사회적 유용성 유형별 외모관리행동 수행의도

외모관리행동		군집유형	비수용형	수용형	t 값
의복관리	나에게 어울리는 의복이나 액세서리 구입		3.44	4.11	-5.68***
	키높이 구두/뒷굽이 높은 운동화		2.87	3.53	-4.69***
	체형커버제품(체형보정용 속옷 등)		2.37	2.92	-4.78***
체중관리	일상적인 식이요법을 통한 다이어트		3.17	3.63	-3.11***
	다이어트 제품(살 빠지는 약) 복용		1.76	2.30	-4.20***
	단식		1.88	2.36	-3.85***
	운동(줄넘기, 헬스, 에어로빅 등)		3.51	3.89	-2.78**
	체중관리를 위한 전문관리실 이용(살빼기교실 등)		2.40	3.28	-6.28***
피부관리	일반 화장품 사용(스킨, 로션, 세안제 등)		3.92	4.41	-3.70***
	색조 화장품 사용(BB크림, 파우더, 눈썹, 립스틱 등)		2.82	3.66	-5.49***
	전문적인 피부관리(피부관리실이나 피부과에서 관리)		3.08	3.96	-6.58***
헤어관리	헤어관리제품(트리트먼트 등) 사용		3.04	3.82	-5.18***
	전문적인 헤어관리(미용실, 피부과에서 두피관리 등)		2.91	3.82	-7.01***
	머리염색, 퍼머, 브리치 등		3.32	3.88	-3.80***
외모변형	피어싱, 귀뚫기(귀걸이 착용)		3.03	3.58	-3.48***
	문신		1.63	2.02	-3.25***
	얼굴 성형수술(쌍꺼풀, 코성형 등)		2.31	3.26	-6.68***
	몸매 성형수술(지방흡입, 가슴/복근 성형 등)		1.84	2.57	-5.61***

** p<.01, *** p<.001

셋째, 여자 청소년은 주로 피부관리와 헤어관리를 많이 수행하고 있었으며, 다양한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수행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은 중학생보다 모든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수행의도가 높았으며, 특히 전문기관을 통한 체중 및 피부관리와 성형수술에 대해 훨씬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넷째, 여자 청소년들은 외모의 사회적 유용성에 대한 태도에 따라 수용형과 비수용형의 2집단으로 구분되었는데, 수용형은 고등학생의 비율이 높고 도시거주자가 많으며 용돈을 많이 받는 반면, 비수용형은 중학생의 비율이 높고 소도시 및 농촌 거주자가 많으며 용돈을 비교적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의 사회적 유용성 유형에 따라 여자 청소년의 신체만족도에는 차이가 있었는데, 수용형이 비수용형에 비해 신체만족도가 낮았으며, 특히 체중에 대한 만족

도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섯째, 외모의 사회적 유용성 유형에 따라 여자 청소년의 외모관리행동에 차이가 있어, 수용형이 비수용형보다 모든 외모관리행동 항목에 대한 수행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해보면, 한국 사회의 외모 지상주의 가치관은 매스미디어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전달되어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외모의 사회적 유용성을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연령의 증가와 함께 점점 더 강화되는 것으로 보여 진다. 매스미디어는 현재와 같은 정보화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정보전달 매개체이므로 매스미디어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매스미디어를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신체를 보다 객관적이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

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지나치게 마른 신체조건을 이상적인 것으로 여김으로써 많은 여자 청소년들이 자신의 신체에 불만족하게 됨에 따라 외모관리행동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특히 연령이 증가할수록 전문기관을 통한 적극적인 체중관리와 피부관리, 그리고 얼굴이나 몸매에 대한 성형수술 등의 외모변형행동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매스미디어의 영향, 미용산업의 팽창, 성형에 대해 관용적인 사회적 분위기 등이 그 원인으로 보여 지는데,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아직 신체적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문제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학교나 기타 전문교육기관은 청소년들이 누구나 다름을 이해하고 자신의 개성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하며 청소년의 신체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리라 본다.

본 연구는 대전과 충남지역의 여자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한 후속연구로는 첫째, 최근 여성 뿐 아니라 남성들의 외모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화장품이나 의복착용 및 다양한 외모관리행동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다양한 연령층의 남성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해본다면 흥미 있는 연구가 되리라 생각한다. 둘째, 외모지상주의 가치관을 전파하는 주요한 매스미디어로 TV와 인터넷을 들 수 있는데, 이들 매스미디어가 외모지상주의를 전파하게 되는 경로와 영향력을 질적인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연구가 수행된다면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신체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여러 문화권에서도 한국은 특히 외모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보여 지는데, 다양한 문화적 특성을 지닌 나라를 대상으로 비교문화연구를 수행한다면 한국의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유용하리라 예측된다.

참 고 문 헌

- 고애란, 김양진. (1996). 청소년의 의복행동에 대한 자기중심성, 자의식, 신체만족도의 영향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0(4), 667-681.
- 고은주, 장남경. (2003). 연령과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신체만족도와 의복행동 연구를 통한 패션 마케팅 전략제안. *대한가정학회지*, 41(12), 13-26.
- 김새미나. (2010). 여고생의 신체만족도에 따른 자존감과 우울의 관계 및 인물화의 특성. 원광대학교 동서보완의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아날리아, 이수경, 고애란. (2006). 남녀 프리틴 세대의 외모관리행동 영향요인: 미디어 관여, 신체만족, 자아존중감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30(11), 1538-1549.
- 김완석, 권지현, 유연제. (2010). 외모의 사회적 유용성: 외모도구성 척도(BVI-SI-A) 개발과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5(3), 549-568.
- 김재숙, 이미숙. (2001). TV 미디어가 청소년의 신체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5(5), 957-968.
- 김정애, 김용숙. (2003). 여고생의 신체만족도와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과학교육학회지*, 14(1), 55-73.
- 김현정, 이명희. (2012). 남녀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4(2), 33-47.
- 민지현. (2008). 미디어 이용이 청소년의 외모지상주의와 신체변형욕구에 미치는 영향 -텔레비전 오락프로그램과 1인 미디어를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19, 46-78.
- 박광희, 유화숙. (2012). 외모관리에 대한 인지, 태도, 행동 간의 인과관계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50(1), 51-63.
- 박은아, 김현정, 서현숙. (2009). 문화적 자기개념에 따른 외모중시 가치관과 외모관리행동.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 광고*, 10(2), 251-274.
- 심준영, 김현희. (2008). 여중고생들의 신체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이 화장정도에 미치는 영향. *복식*, 58(4) 128-138.

- 윤진. (1993). 청소년 심리학. 도서출판 서원.
- 이명희. (2003). 청소년의 외모관련행동과 라이프 스타일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7(9/10), 1101-1111.
- 이미숙. (2000). *TV 미디어가 청소년의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 및 연예인 모방행동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시원. (2004). *공적사적 자기의식에 따른 바디 이미지와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조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양완, 권숙영. (2010). 신체이미지 인식에서 행위적 반응까지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관계연구: TV 노출과 사회문화적 요인의 역할. *언론과학연구*, 10(4), 390-424.
- 이은희. (2007). 고등학생의 신체만족도, 외모와 의복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과학회지*, 10(1), 49-58.
- 이종순. (2007). 신체만족도에 따른 청소년들의 외모관리 양상 분석-의복, 피부관리, 몸매관리를 중심으로-. *한국미용학회 추계학술발표회 논문집*, 111-113.
- 장희순. (2007). 청소년의 신체상과 성형 태도에 대한 고찰. *2007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6-7.
- 전경숙. (2001). 여자 중·고교생의 신체만족도와 의복만족도의 관계연구. *복식*, 51(5), 5-16.
- 정수진, 추미선. (2011). 체형인식과 자아존중감, 신체만족도 및 신체이미지가 의복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3(3), 117-133.
- 조현임. (2005). *청소년의 신체만족도와 자아존중감 및 또래동조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수빈, 조우현. (2003). 서울·인천 중고등학생의 신체만족도와 선호 스타일에 따른 의복행동 및 의복구매행동.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5(3), 99-110.
- 한국청소년개발원(2000). *청소년의 신체적 자아상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
- 한상철. (1998). *청소년학 개론*. 중앙적성출판사.
- 나도 아이돌처럼... '성형열풍'에 빠진 10대들. (2011. 10. 14). *조선일보*. 자료검색일 2012. 11. 1. 자료출처 <http://news.chosun.com>.
- 얼짱, 몸짱 ...외모가 인생을 좌우한다? (2006. 11. 07). *조선일보*. 자료검색일 2012. 11. 1. 자료출처 <http://news.chosun.com>.
- 외모도 경쟁력이다! 성형을 꿈꾸는 아이들-십대성형열풍(2006. 11. 4).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졸업앨범 찍기 전에 ...성형외과로 몰려드는 중3. (2012. 07. 20). *조선일보*. 자료검색일 2012. 11. 1. 자료출처 <http://news.chosun.com>.
- 케이블 TV '메이크 오버' 뜬다! 왜? (2010. 07. 08.). *조선일보*. 자료검색일 2012. 11. 1. 자료출처 <http://news.chosun.com>.
- Block, P. H., & Richins, M. L. (1992). You look marvelous: The pursuit of beauty and the marketing concept. *Psychology and Marketing*, 9, 3-15.
- Haas, A., & Gergory, S. W. (2005). The impact of physical attractiveness on women's social status and interactional power. *Sociological forum*, 20(3), 449-471.
- Kaiser, S. B. (1997).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Symbolic appearances in context*(2nd ed.). New York: Mac-millan Pub. co.
- Mulford, M., O'bell, J., Shatto, C., & Stockard, J. (1998). Physical attractiveness, opportunity, and success in everyday exchang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3(6), 1566-1592.
- Sarwer, D. B., Magee, B., & Clark, V. (2004). Physical appearance and cosmetic medical treatments: Physiological and socio-cultural influence. *Journal of Cosmetic Dermatology*, 2, 29-39.
- Secord, P. F., & Jourard, S. M. (1953). The Appraisal of body cathexis: body cathexis and self.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17(5), 343-347.
- Stice, E., & Bearman, S. K. (2001). Body-image and eating disturbances prospectively predict increases in depressive symptoms in adolescent girls: A growth curve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37(5), 597-607.